

보도시점 2026.9.8.(화) 10:00 배포 2026.9.8.(화) 09: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11호 프로젝트 선정

- 경북 안동에 총사업비 380억원 규모의 산림자원수집센터 조성
- 지역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높여 지역 임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11호 프로젝트 선정 】

’24년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열한 번째 프로젝트로 「경북 안동 산림자원수집센터 조성」 사업이 선정**되었다.

* 지방정부와 민간이 지역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정부 재정 등이 조성한 모펀드가 마중물로 참여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지역 주도 투자 방식

** 모펀드 운용사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이 선정

「경북 안동 산림자원수집센터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380억원을 투입하여 연간 50만 톤 규모의 산림자원을 수집·가공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 시설에서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등을 수집·가공하여 건축·가구재 및 바이오매스 발전용 목재원료를 생산할 예정이다.

* 산림에 남아 있거나 부가가치가 낮아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임산물로서 원목 생산·숲가꾸기 등 인간 활동이나 병해충·산불·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의해 발생

경북은 전체 면적(184만ha)의 약 70%(129만ha)가 산림이나, 일부 산림자원의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특히, ’25.3월 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로 광범위한 산림이 소실됨에 따라 피해목을 비롯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산림자원수집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산림 내 활용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목재를 적기에 수거함으로써 산림 재해 위험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동 프로젝트는 올해 하반기 인허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계획】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 등이 출자하여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방정부·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 및 프로젝트 SPC를 설립하여 모펀드 투자액의 최소 10배 규모(레버리지)로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정부는 모펀드를 통한 마중물 투자 및 위험 부담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재정투자심사 단축·면제, 선순위 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특례보증 등 지역활성화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로드쇼를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운용사·투자기관·지방정부 간 협력의 장(매칭데이)을 마련하는 등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예산실 지방재정팀	책임자	팀 장	박민정 (044-214-3190)
		담당자	사무관	김민주 (journey@korea.kr)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책임자	과 장	김민정 (044-205-3501)
		담당자	사무관	김형균 (pangkim17@korea.kr)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박재훈 (02-2100-2860)
		담당자	서기관	장원석 (jangwonsuk@korea.kr)



참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개요

□ (의의)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최초의 정책 펀드로서 '24년 신규 도입

- 매년 정부 등이 조성한 모펀드*를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최소 10배 레버리지)

* '24년 및 '25년 각 3천억 규모로 조성(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은 각 1천억원), '26년 2천억 규모로 조성(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은 각 5백억원, 기타 총 5백억원)

- 기업에 투자하는 일반적인 정책펀드와 달리,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지역의 대규모 지역활성화 사업을 PF 금융방식으로 추진

그간 지역투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단발적·소규모 사업	대규모 사업(조 단위 가능)
높은 재정 의존도	풍부한 민간자본 활용
중앙정부 주도 Top-down 방식	지방정부·민간 주도 Bottom-up 방식
제한된 사업성 검증(정치적 의사결정 등)	민간의 철저한 사업성 검증
제한된 사업 유형(Positive 방식)	제한없는 사업 유형(Negative 방식)
리스크, 규제 등 민간투자 걸림돌	정부의 마중물 투자 및 각종 규제 완화

□ (구조) 모·자펀드 구조를 활용하여 레버리지 극대화

모펀드	▶ 정부 등이 매년 2,000~3,000억원 규모 조성(마중물 역할) ▶ 모펀드 운용사가 독립적으로 프로젝트 선정(자펀드의 최대 50% 투자)
↓	
자펀드	▶ 모펀드와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자펀드 결성 ▶ 자펀드는 프로젝트 SPC에 자본금, 대출금 투자(총사업비의 20% 內)
↓	
프로젝트	▶ 민간사업자, 지방정부, 자펀드로 구성된 SPC가 프로젝트 추진 ▶ 대주단(민간 은행권 등) 대출을 활용하여 자금조달(HUG 특례 보증 제공)

□ (지원대상) 펀드 조성 취지, 공익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역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선정한 프로젝트*(negative 방식)

* 수도권 소재 사업, 사행성, 위험물 저장·취급, 단순 주택 분양 사업 등 제외

□ (인센티브) 모펀드를 통한 마중물 투자·위험분담, 지방정부 재정투자심사 단축·면제, 각종 규제 완화, 선순위 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특례보증, 신속한 인·허가, 프로젝트 교육·컨설팅 등